

| 14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572.89 | ↑ 코스닥 | 899.47 |
| | (+38.19) | | (+16.75) |
| ↓ 금리 (연이자율) | 3.836 | ↓ 환율 (원/달러) | 1325.70 |
| | (-0.017) | | (-4.3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교육 등 민생분야
법집행·정책역량 집중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기회발전·교육자유·융합·문화 지방분권 위한 '4대 특구' 추진

尹 정부 '지방시대 선포'

과격 세제혜택으로 기업투자 확대 특구지정으로 지방권한 대폭 강화

지방 육성 인재, 지역 내 정착으로 지역성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과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공공교육 혁신, 지방 도심특구 조성, 로컬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이 골자다. 특히 지방에 대폭 권한을 주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특구를 지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업인, 청년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일자리 확대, 지역주도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 복지,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

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신설해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 특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

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맞춤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지역 명문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융합 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공간 조성 과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등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14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선로에 화물열차가 멈춰서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뉴시스

현대차 '아이오닉 5N 테크 데이'

정의선이 공들인 고성능 전기차 650마력 제로백 3.4초 국내유일

온몸 설레게 하는 배기음
주행성능·내구성 동시 충족

"아이오닉 5N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용기, 끊임없는 도전으로 한계를 극복했으며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준우 현대자동차 N 브랜드 매니저먼트실장(상무)은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레이아웃 11에서 열린 '아이오닉 5N 테크 데이'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에 적용된 전동화 기술을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날 행사장에 들어서자 아이오닉 5N의 배기음은 온몸을 설레게 했다. 배기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상 조용한 분위기로 행사장을 꾸미는 경쟁 브랜드와 사뭇 다른 느낌을 줬다. 아이오닉 5N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랜기간 공을 들여온 모터스포츠의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더해져 완퍼카와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 성능과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55개가 넘는 팀이 협력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박준우 현대차 N 브랜드 매니저먼트실장(상무)은 "아이오닉 5N은 고성능 전기차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로는 힘들었던 주행 성능과 내구성 등을 동시에 충족시킨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650마력, 제로백 3.4초를 내는 전기차는 국내 유일하다"고 자신했다.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N 브랜드가 추구하는 3대 핵심 요소인 ▲레이스트

랙 주행능력 ▲곡선로 주행능력 ▲일상의 스포츠카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5N에 탑재된 핵심 기술과 작동 방식을 소개했다. 발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고성능 차량 개발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현대차가 개발한 아이오닉 5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650마력, 최대토크 770Nm 성능을 발휘한다. 또 날카로운 코너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N 특화 차체 사시와 N 페달을 적용했다. N의 중량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차체와 사시를 효율적으로 보강해 더욱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4세대 고전압 배터리셀과 고성능 열관리 제어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박상진 현대차 배터리셀 설계팀 파트장은 "현대차 아이오닉 5N은 SK온과 협력해 개발한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기존 전기차 대비 강화된 4세대 배터리(670KW)를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아이오닉 5N 테크 데이 행사장 내부 모습. /양성운 기자

亞 통화 가치 약세... 외풍에 흔들리는 원화

위안화 가치 -2.7%, 엔화 -3.7%
원화 -4.4%로 리스크 가장 취약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한국 원화가 모두 약세를 이어감에 따라 아시아 외환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가 '역대급'이라지만 지난달 달러 대비 평가절하된 폭으로 보면 원화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 외국인 자금은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중국발 경기둔화와 부진한 수출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중순만 해도 1260원대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달에는 13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달러 강세가 재연됐지만 엔화(-3.7%)와 위안화(-2.7%)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 경제를 코너로 몰 수 있는 리스크로 부각됐다.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은 지난 8일 달러당 7.3647위안으로 2010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고, 역내 환율도 7.3439 위안으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환율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약화되는 쌍절벽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수출입은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양조치에도 내수 경기의 회복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경제부진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을 상회할 경우 여타아시아 국가들은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발 불안이 금융시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에 파급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면 파장은 더 클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기 회복에 총력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며 "실제 위안화 약세를 선택한다면 중국 내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와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지역 정치인 반발 이어가... 릴레이 단식도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의원 55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 강조

▲ 국민의힘,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촉구
▲ 경실련, 입법실적 분석 결과 발표... 최하위에 국힘 김웅 의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발언 논란 해명 약속 /사진 뉴시스
▲ 일본, 북러 정상회담에 우려 표명... 안보리 위반 가능성도 제기